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6, 68)

미사 시간	
미사	주일 11:30(본당)
	주일 17:30(공소)
평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금) 19:3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금) 20:0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년에 1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훈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라인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10시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주(금) 성시간 후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액: \$110,000 현 모금액: \$86,409 (78.5%)

One Heart One Soul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교구 사이트 (<https://www.oneheartonesoul.ca/give>) 참조 바랍니다.
※ 주소 변경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베드로)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 ▶ 8/ 25(일) 연중 제 21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 ▶ 8/ 27(화) 성녀 모니카 기념일(본당 20:00)
 - ▶ 9/ 1(일) 연중 제 22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 ※ 성수 예식과 9월 세례 축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사목회의 일시 및 장소: 다음 주 8/30(금) 20:00, 대철실

◎구역장 회의 일시 및 장소: 9/1(일) 미사 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30-50 대 형제 자매님들과 친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가 있으신 가정은 아이동반도 가능합니다.

▶ 8/31(토) 11:00 친교실, 문의: 김의수 안드레아, 박규혜 카타리나

◎은빛 모임 강좌 예비 모임

9/1(일) 미사 후 친교실, 간다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교육 분과장 이동규 프란치스코

◎복사단과 주일학교 단합대회 9/7(토) 원더랜드로 단합대회를 합니다.

◎ 해밀튼 성 유대월 본당 30 주년 축하 골프대회

활불하신 분들은 9/22(일) 다시 접수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및 장소: 9/28(토) 12:00 South Brook GC
문의: 행사분과장 김한욱 에릭

◎2024-2025 주일학교 안내

- 주일학교 신청 받습니다. 신청서는 성당 정문앞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강 예정일: 9월 15일
대상: 유치부 - 6학년
문의: 박혜영 수산나

◎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 해 주실 선생님을 찾습니다. 문의: 박혜영 수산나

◎한가위 위령 미사 예물 봉헌

9/15(일)은 한가위 미사로 봉헌합니다.
한가위 위령 미사 예물은 전례부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미사 후 성모회에서 친교를 위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공소 소식

▶ 8/25 (일) - 미사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친교 식사는 없습니다.

▶ 유아세례식 안내

- * 일시 - 8월 25일(일)
- * 대상자 - 최윤성 레오 / 최로아 루시아
- ▶ 8월 공소 신자 축일자 축하합니다.
(8/15) 정영숙 마리아, (8/18) 김명숙 헬레나
(8/21) 이춘혜 그레이스.

단체 소식

▶ 본당 울뜨레아

9월 본당 울뜨레아는 9/12(목) 19:00 친교실입니다.
꾸르실료 주말 교육관계로 한 주 연기 됩니다.

구역 소식

- 구역 9/21 토 11:00 대철실
- 구역 9/21 토 11:00 친교실
- 구역 9/21 토 12:00 친교실
- 구역 9/14 토 18:00 김성수 베드로 형제님 댁
- 구역 9/22 일 13:30 친교실
- 구역 9/14 토 18:00 이승익 다니엘 형제님 댁
- 구역 9/21 토 17:30 박신준 비오 형제님 댁

친교 식사

- | | |
|------------|---------------|
| 9/ 8: 3 구역 | 9/15: 성모회(추석) |
| 9/22: 4 구역 | 9/29: 5 구역 |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08 명)			
주일헌금	\$1125	교무금	\$10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690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 성가대 (이인선 쟁마)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임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 기도합시다.
- 하느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9월 본당 세례 축일자 (44 명)

- 9/ 3 그레고리오(박기형, 김준홍), 그레고리아(김정혜)
- 9/ 4 모니카(이경구)
- 9/ 5 데레사(김지혜, 이순복, 민연환, 권민아)
제노(이준우)
- 9/ 7 레지나(황미옥, 이나라)
- 9/ 8 아델라(정세빈), 마리아(홍미경)
- 9/17 힐데가르트(이은영)
- 9/18 소피아(소성희), 리카르다(송지은)
- 9/21 마태오(정현기, 권재성, 정원규)
- 9/23 비오(박신준) 9/26 유스티나(홍유나)
- 9/29 미카엘라, (정나현, 조정순, 이병예, 김재원, 박아인)
미카엘(윤성희, 강호경, 홍민준, 김세현, 손정일,
유준, 정상현, 이영섭)
- 라파엘라(정가현, 양남숙, 김지원, 박해인)
- 라파엘(양향남, 유세진)
- 가브리엘라(박재인, 한성원)
- 가브리엘(최임환)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8/25	이은영 힐데가르트	최두원 스텤파노 이준서 사도요한	1 독서: 이인선 젬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김의수 안드레아 박혜영 수산나
9/ 1	신낙희 마리아	최두원 스텤파노 최아현 베로니카	1 독서: 김한욱 에릭 2 독서: 채정희 올리비아	이인선 젬마 김영미 스텔라
9/ 8	임연신 비아	송 찬 아론 이준서 사도요한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김한욱 에릭 채정희 올리비아

제자가 스승을 떠나는 까닭은

손태성 다미아노 신부
하단 성당 주임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요한 6,66)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참스승을 만났을지라도 제자가 스승을 떠난다면 가장 불행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스승 예수를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고 스승의 깨달음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자 열망하지만 제자는 스승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스승은 깨닫고 가르침을 베풀었지, 듣고 깨달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깨달음은 언어도 단 불립문자(言語道斷 不立文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스승의 깨달음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잘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요한 6,60)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입니다. 스승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고 그 말이 귀에 거슬렸던 것, 그로 인해 결국 떠나감은 그들의 ‘들음’의 자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로마 10,17) 믿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은 자들입니다. 스승의 말을 듣되 듣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알음알이’의 세계를 견고히 쌓아가고 조각난 지식들을 진리라고 착각하였습니다. 화려한 언어들과 정교한 논리들을 스승의 가르침과 동일시하며 자신의 뜻에 스승이 동의할 것으로 믿게 되거나(루카 9,54 참조), 높은 자리를 원하며(마르 10,35 참조), 머지않아 스승을 배신하는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요한 6,71 참조)

지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나의 판단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자연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는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 그들과 내가 일체(一體)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마저 없는 완전한 들음이 될 때, 비로소 스승의 마음을 듣게 되고 그분이 나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자도 더 이상 듣고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고 말하는 스승처럼 되었습니다. 스승과 하나가 되어버려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신이 듣고
신이 말하고 내가 듣고
서로 말하지 않고 서로 듣고
서로 말하지 않고 서로 듣지 않고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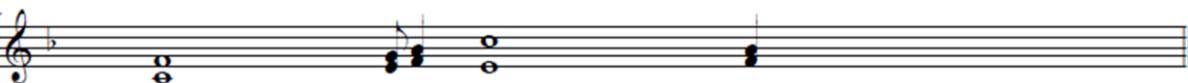


연중 21 주일

(2024. 8. 25)

제 1 독서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24,1-2 ↗ 15-17,18 ↘

화답송 시편 34(33),2-3,16-17,18-19,20-21,22-23(◎ 9 ↗)



후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사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

○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5,21-32

복음 환호송 요한 6,63,68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60 — 6,69